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면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원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の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一、明代の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一、明代的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末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一、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一、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가, 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더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나, 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贅歟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이고,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을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 는 열의(二、)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하였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격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先——干支^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격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둘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中宗實錄

中宗二十三年(嘉靖七年).....	一
中宗二十四年(嘉靖八年).....	二四
中宗二十五年(嘉靖九年).....	一四八
中宗二十六年(嘉靖十年).....	一六七
中宗二十七年(嘉靖十一年).....	一七五
中宗二十八年(嘉靖十二年).....	一八二
中宗二十九年(嘉靖十三年).....	一九四
中宗三十年(嘉靖十四年).....	二〇一
中宗三十一年(嘉靖十五年).....	二五

目次

中宗三十二年(嘉靖十六年).....三二

中宗三十三年(嘉靖十七年).....三八

中宗三十四年(嘉靖十八年).....三一

中宗三十五年(嘉靖十九年).....二四七

中宗三十六年(嘉靖二十年).....二五五

中宗三十七年(嘉靖二十一年).....二七一

中宗三十八年(嘉靖二十二年).....二六八

中宗三十九年(嘉靖二十三年).....三〇五

仁宗實錄

仁宗元年(嘉靖二十四年).....三五

明宗實錄

明宗零年(嘉靖二十四年).....	三九
明宗元年(嘉靖二十五年).....	三三
明宗二年(嘉靖二十六年).....	三六
明宗三年(嘉靖二十七年).....	三四
明宗四年(嘉靖二十八年).....	三五
明宗五年(嘉靖二十九年).....	三七
明宗六年(嘉靖三十年).....	三八
明宗七年(嘉靖三十一年).....	三六
明宗八年(嘉靖三十二年).....	三七
明宗九年(嘉靖三十三年).....	三七
明宗十年(嘉靖三十四年).....	四〇
明宗十一年(嘉靖三十五年).....	四八

明宗十二年(嘉靖三十六年).....	四二〇
明宗十三年(嘉靖三十七年).....	四二四
明宗十四年(嘉靖三十八年).....	四二九
明宗十五年(嘉靖三十九年).....	四三四
明宗十六年(嘉靖四十年).....	四三六
明宗十七年(嘉靖四十一年).....	四三七
明宗十八年(嘉靖四十二年).....	四三九
明宗十九年(嘉靖四十三年).....	四三三
明宗二十年(嘉靖四十四年).....	四三七
明宗二十一年(嘉靖四十五年).....	四四二
明宗二十二年(隆慶元年).....	四四九

宣祖實錄

宣祖元年(隆慶二年).....	四五三
宣祖五年(隆慶六年).....	四五四
宣祖六年(萬曆元年).....	四五五
宣祖七年(萬曆二年).....	四五六
宣祖十三年(萬曆八年).....	四六〇
宣祖十六年(萬曆十一年).....	四六一
宣祖十七年(萬曆十二年).....	四七三
宣祖十八年(萬曆十三年).....	四七五
宣祖二十年(萬曆十五年).....	四七六
宣祖二十一年(萬曆十六年).....	四八五
宣祖二十二年(萬曆十七年).....	四九〇
宣祖二十五年(萬曆二十年).....	四九四

中宗實錄 卷六十一

二十三年四月

○戊申_上下平安道敬差官_{元繼}啓本曰此公事速爲照律事其言于

刑曹_{元繼}啓本昌州僉使李禮幹滿浦生變後邀擊時以中衛將扞以冰泮先令

_{軍馬越江投棄賊斃身自逗遛不敢渡江經自回軍不從主將之令大失軍機}

戊申○兵曹啓曰柳尙齡上疏已久而建州衛所通文書及平安道
觀察使節度使啓本亦來此皆軍國重事不可使三公久不知也請
命招三公及備邊司會議何如傳曰啓意知道三公及東西壁合坐
與兵曹備邊司會議可也尹仁鏡啓曰前者兵曹書啓單字_{野人征討事}下
政院亦於合坐時議之乎敢稟傳曰依啓

庚戌○領議政鄭光弼左議政沈貞右議政李荇兵曹判書李沆禮
曹判書許碯左參贊安潤德戶曹判書尹殷輔右尹金錫哲雞林君

崔漢洪同知中樞府事李之芳兵曹參判尹希仁等同議啓曰西討之事所當不忘而不得已爲之也在彼道平安將帥非不良也然觀祖宗朝規模則其道將帥爲副元帥之任而更以秩高者下送以主號令乃其制也今若不得已舉事則兵使及他人等皆一從其人之指揮然後可也前者許琮當北征時先往而巡審邊情旣來而議于朝廷然後又復下歸其往來有弊固不可計也大抵邊情朝議相爲乖違則不可遙制必須往審而來然後可舉大事其兵馬虛實在邊將所當審而處之然朝廷必遣重臣而委任然後事亦有成若於秋成爲之則尤當速往詢審而來也上教以爲巡邊使稱號而往則彼人必易知預爲設備云臣意以爲先知無妨也邊將閱武若將今日入征使之不得安心耕耘爲當反覆計之邊情所當細知而後爲之故臣等如是議之更無他意且人之議論不一或以爲當速舉事或

以爲徐緩爲之大抵爲不爲間必須擇其能爲詳度計較之人下送則彼人見之雖以爲空往空還此則無妨也傳曰昨日更議之意以朝廷時行宰相中知邊事之人非一二也在彼道將帥謂兵使曹閏孫亦朝廷擇遣之人也兵食措置事與夫征討遲速皆聽其人觀勢而爲之若以其人爲不堪則以其終始可授其邊事者送之全付一道之任兵食與舉事遲速皆當審處之故令更議也今以巡邊使下送則重臣往來之際徒有貽弊而別無有益之事也使彼人先知而不得安心於耕耘此言似當然使之先知而預爲之備是亦不當但朝廷大臣非一二也豈偶然計而議之乎當如所議爲之

○兵曹判書李沆啓曰若遣巡邊使則不得已亟遣可當之人何以爲之傳曰遣巡邊使之事非如他事必以重臣遣之也且其人必於朝議皆當然後可遣其僉議以啓李沆以洪淑許疏書于單字以啓

曰議于大臣則此二人可當於巡邊使云故書啓傳曰許碯則能知邊事而洪淑則不能盡知故落點于許碯也

○右承旨尹仁鏡以兵曹備邊司同議公事入啓曰建州衛所通文書令李和宗翻譯而此處回答之辭若不翻譯則彼人不得解見故又以吏文翻譯也其翻譯建州衛文書內建州衛都督同知散喇都上告滿浦鎮守宰相大人知有我百姓人到汝城中欲買賣而遇有賊人汝地方上作賊故將我好人拘留未知有無散喇都告好人一路行賊人一路行甚分明汝之討賊人馬雖到我地方人馬亦不追今去人之還我人拘留名數具書回送則汝地方擄來生存人亦當買還而送云已上建州衛書契故令滿浦僉使回答云我國誠心待汝無內外之殊故邊將等出入彼境略不相疑不持兵器不遣斥候爾地之人陰懷毒心乘我不備殺害邊將搶擄人馬伺隙作賊之計非一朝一夕

爾類通謀所爲之事故李伊下愁等八名金者土等七名囚禁爾欲
暴白不干兇謀之狀則前日滿浦作賊人一一擒獲請罪而擄去我
國人馬無遺刷還則我國非徒盡還囚禁之人爾類亦當厚賞待之
如初萬一執迷不悟則舉兵問罪必有玉石俱焚之患悔無及矣禍
福存亡之幾爾自商度自處已上回答建
州衛之辭也以右辭緣吏文翻譯書契草成
送于滿浦以書契內辭緣反覆開諭且曰汝若遺忘不能盡傳當書
給云彼人所見處劃卽書給事承傳移文何如啓依允

壬子○上御宣政殿引見許碓上謂許碓曰今者平安道巡邊之事
非只爲巡邊而已也征討之事必待巡邊後爲之故大臣議啓也但
此事甚大如欲舉事雖不徵他道之兵而只以其道之兵猶可爲耶
徵兵他道甚爲有弊此事卿歸所可斟酌商度而來也許碓曰臣常
時儕輩中最爲庸劣今若只巡邊地而來則雖十次往返何敢憚勞

但以後日之事並付之三軍之命係於將帥若一誤爲不可追改必待朝廷謨議得宜將士協力則庶可爲也然如此重任臣何能堪至爲惶恐彼道之事不可在此遙度不得已往見後可圖也前在世宗朝崔潤德李蕝等再爲征討其時皆以一萬兵入征而只用本道及黃海道之兵也彼賊之辱我甚矣不得已欲示國威則一舉之後不可再爲且分道而進或據險屯兵則恐兵力分矣如是則必須多辦若本道兵不足則黃海道之兵亦可用也且近來平安道疲弊自癘疫驅逐之後兵馬減小云此亦可慮朝廷之議或以爲四五月間可以入征云臣意九十月間庶或可爲也然必於今年內爲之事未可知也此必與老於邊事者商度然後可知也今此痛憤之事孰不欲(卽力)郎爲雪恥但非如一家之事不可怒卽舉而報之也必待兵食裕足後可爲也且若入征則兩界所當措置而一揅防禦也他餘事不可

在此遙度必往見而後可以議爲也上曰如此重任朝廷豈偶然計而薦之乎兩界之事洪淑則不知而卿能知之故以卿委遣何有不堪乎彼處之事果不可遙度今雖往還豈可及於四五月舉師乎（下略）○傳曰前於內藏搜見西征記及北征記在成廟命許琮西征時選軍馬之事及請停疏劄與征討首末無不備錄也大抵前古之事在今可見今時之事在後可見也今時之事不得已舉兵問罪其以滿浦生變之初及其尾末之事並詳悉謄錄以備後考

癸丑○鄭光弼等僉議再啓曰（中略）今臣等欲送許琬者非必於今年定欲入征也其可爲與否不得已在必巡審故啓之也自上之意若以爲秋來可以下送而且不必於今年舉事則雖在今不遣亦可也此在上裁傳曰邊將被殺上下痛憤之心豈可極耶若兵食有餘則所當卽爲征討也昨日巡邊使亦云雖有痛憤之心必使兵食裕足

然後可舉云其於秋成往審而更議舉事當否而爲之甚當

○傳于洪彥弼韓承貞等曰巡邊使下送事議于大臣而待秋成發遣此意知悉

〔參〕○丙辰下平安道觀察使李世應啓本曰見此啓本至爲驚愕與前日元

繼蔡啓本頓殊元繼蔡啓本則馬蹄加鐵故爲遲留等事皆爲發明故其

罪如是論定也白巨鱸李樞并杖一百發邊遠充軍今此啓本則鎮撫官婢等皆已承服其故爲

遲留之狀判然至爲過甚前後二啓本太相不同意元繼蔡似不分明推

鞠（鞠力）也在今不知從何啓本乎此啓本留于兵曹待其歸一後定罪也啓本臣

沈思遜遇賊被殺形止親自究問則鎮撫朴元同等招內僉使以李樞則族屬白巨鱸則武才卓越當時各別愛恤去正月二十三日聞僉使遇賊被殺白巨鱸稱病房內臥在而起出僉使下處進去以無弓矢稱云僉使房直自手出給弓矢

又稱無米食房婢亦以米食藥果等物出給後白巨鱸於僉使軍官下處街路中無所爲之事而或往或來故爲遲留至午時城外一里許出歸僉使屍體相逢一時還鎮而日沒後陳香岐伊追擊處追到初更還鎮馬蹄加鐵事初以僉使教

令加鐵于僉使馬蹄官奴聞變即止李樞則托稱軍器分給終不出去纔出門外僉使屍身相逢還來云官婢萬今千年非等招內同日已時聞變後一食頃白巨鱸（巨鱸力）手執一弓來到僉使下處以無弓矢說道僉使房直即以弓一張長片箭手

自出給又一食頃還來以無米食說道（巨鱸力）又下平安道觀察使啓本曰前者彼人等或有刷

還我國人民者被擄之時彼雖刷還而來其拘囚野人不放一人則彼人之心